

100년 전통 순천 저전성당, 역사정원으로 개방

담장 허물고 시민과 시설 공유
남초교 남관 건물은 복합공간으로

100년 전통의 순천 저전성당이 역사 정원으로 꾸며져 시민에게 개방됐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저전성당은 1919년 순천공소로 시작해 순천은 물론 전남 동부지역의 본당으로 자리잡았다. 유구한 역사자원과 넓은 휴게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동선이 단절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저전동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저전성당과 업무협약을 하고 높은 담장을 허물어 휴게 공간을 주민과 공유하고 골목길을 연결하기로 했다. 성당 내 정원과 휴식 공간은 지역 주민과 공유

하는 개방정원으로 거듭났다. 사무실 공간은 리모델링해 개방화장실로 만들었다. 성당의 높은 담장에 가로막혔던 골목길도 연결돼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저전성당 인근에 있는 순천남초등학교에 놀이터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학생 수 감소로 방치된 남관 건물도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주민복합 공유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저전성당과 남초등학교의 특화재생사업으로 시설이 개방되면, 저전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천동 등 인접한 도시재생구역과 연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100년 전통의 순천 저전성당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담장을 허물고 역사정원으로 꾸며져 시민에게 개방됐다. <순천시 제공>

'재미있는 곡성역사 웹툰'
매주 월요일 블로그 연재
김대훈 작가 27편 제작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웹툰을 제작해 배포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알고보면 재미있는 곡성역사' 웹툰을 지난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곡성꿈농자' 공식블로그에 연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웹툰은 '호곡'이라는 작품을 연재했던 김대훈 작가가 참여해 총 27편으로 제작됐다. 웹툰은 지난해 제작된 초등학교 5학년 수업 보조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지역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웹툰은 블로그 연재가 마무리되면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1화는 '곡성 출신 신승경 장군 고려 태조 왕건을 살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지역 역사에 대한 콘텐츠를 다양화 하기 위해 웹툰을 제작했다"며 "웹툰의 주인공과 공간적 배경을 지역의 사람들과 마을로 확대해 곡성역사 시리즈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광양시, 20억 들여 광양항 활성화 특별사업 편다

여수광양항만공사·전남테크노파크와 활성화 협약 체결

광양시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8년 240만TEU, 2019년 238만TEU, 2020년 215만TEU 등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물동량 감소를 멈추고 다시 활기찬 광양항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사업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남도지사와 항만관계자 간 2차례 간담회로 항만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 들은 뒤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테크노파크,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운영사(GWCT·KIT)와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광양시는 도비 10억원 등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광양항 장비 임대 지원 ▲항만 배후단지 입

주기억 맞춤형 사업과 지원 ▲광양항 수소 전용항만 구축 용역 ▲자동차 터미널 구축에 따른 화물유지 및 창출 방안 연구 ▲광양항 활성화 정책 포럼 ▲물동량 창출 세미나 개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항 장비 임대 지원사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사에 각 2대씩 리치스태커(컨테이너 핸들링 장비)를 2년간 무상으로 임대 지원한다. 또,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억 맞춤형 사업과 지원 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은 지역전략 산업육성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20억원을 투입해 광양항 활성화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양항 전경. <광양시 제공>



보성군, 참전 유공자 기념탑 완공...현충공원 지정 추진

보성군은 보성지역의 6·25 참전 유공자를 기리는 기념탑이 완공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보성을 현충탑 인근에 들어선 참전 유공자 기념탑은 지역 출신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정신과 굳건한 충절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늘·땅·물·불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이미지화해 표현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군인 동상을 좌우 대칭 배치해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상징물을 설치했다. 또 나라 사랑의 뜻을 기리기 위해 1014명의 참전자 이름을 기념탑에 각인했다.

보성군은 현충탑과 참전 유공자 기념탑이 있는 현충 시설 주변을 공원화하기로 하고 주변 대지를 매입해 진입로를 확·포장했으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인근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애국심 고취와 함께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며, 주민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TV와 가로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충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고장의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미래 100년 설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여수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수시정' 구현을 위해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여수개항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기념해 지난 100년을 재조명하고 여수 미래 100년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이다. 또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달라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의 위상을 알리고,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섬의 가치 및 잠재력 발굴 등 여수만의 특성을 살리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을 받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자에게는 금상 300만원(1명), 은상 100만원(1명), 동상 50만원(1명), 장려상 30만원(2명)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는 여수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제안심사실위원회에서 실시 가능성·창의성·효율성·효과성 등 7개 심사항목을 평가해 5월중 당선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